

특특뉴스

aT,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대한민국 농합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 1인당 최대 2만원을 할인한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업체별 온·오프라인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를 진행하는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직거래매장, 전통시장 등이며,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통업체별 할인행사 기간과 품목은 다를 수 있어 전단지, 매장 내 광고판, 앱 등을 통해 할인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혜린 기자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 '눈덩이'

현대차 지난주 수천대 생산 차질
금호타이어 1주일간 출하 '제로'
레미콘 동나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로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기업, 화주, 자영업자 등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철강과 석유 화학업체의 물류난이 심화하고 있다.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철강 제품 9만톤이 반출되지 못했다. 지난 10일 냉장 보관해야 할 농산물 등 2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화물연대와 협의해 반출되기도 했지만, 이후 반출량은 없는 상황이다.

여수산단 업체들도 긴급한 물량을 화물연대와 협의해 반출하고 있지만, 평소 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의 선재와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선재 제품은 하루 약 7,500톤, 냉연 제품은 약 4,500톤 등 약 1만2,000톤 수준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출하량은 1주일 만에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일평균 출하량은 파업 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광양항 출입구에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거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평균(7만4,000톤)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중으로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타이어 업계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은 정상적으로 되지만 내수와 수출 물량의 출하가 제대로 안 돼 공장 내부에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국내 공장 3곳에서 생산하는 타이어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1주일 동안 전혀 출하되지 않고 있다.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소주와 맥주 출하

량이 평상시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다.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다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파업으로 출고율이 38%까지 떨어지자 다른 업체와 물류 계약을 맺어 주말새 누적 출고율을 60%까지 끌어올렸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오비맥주는 이천·정주·광주공장 3곳의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20~25% 수준에 그치자 대체 차량 설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삼다수 운송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항

봉쇄는 해제됐지만, 육지에 도착한 배에서 내린 삼다수를 화물차로 운송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말 기준 운송률이 평시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1주일째 중단되면서 공사 현장은 '울스톱' 위기에 처했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타설 대신 마감이나 후속 공정 준비 등 대체 공정으로 돌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초기 팔조 공사 단계의 현장들은 대체 작업조차 할 것이 없어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연수 기자·연합뉴스

그래픽 경제

가장 많이 오른 외식품목 10순위

21년말 대비 올해5월 외식품목 가격상승률
*39개 외식품목 가격 모두 상승



자료: 통계청 국가경제포털(KOSIS)

가장 많이 오른 외식품목 '치킨'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경제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작년 말보다 올랐는데 치킨(6.6%)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장면(6.3%), 떡볶이(6.0%), 갈국수(5.8%), 짬뽕(5.6%) 순이었다.

김밥(5.5%), 라면·커피(각 5.2%), 뷔페(5.0%), 소주·맥주(각 4.9%), 스테이크(4.8%), 된장찌개·백반·해장국·탕수육(각 4.7%), 김치찌개·백반·햄버거(각 4.5%) 등도 많이 올랐다.

경제단체협 "총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협의회는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 등 3중고

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불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무역협회, 납품지연 등 파업 애로 155건 접수

한국무역협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지난 11일 기준 총 155건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납품이 지연(25.2%)되고 위약금이 발생(21.9%)하며 선박 선적에 차질(18.7%)이 생기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수가 102건에 달했다.

또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15.5%) 생산이 중단(9.0%)되며 물류비가 증가(9.7%)하는 등 수입에 대한 애로사항은 53

건이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조기 협상을 촉구하며 군위탁 화물차량 지원, 공컨테이너 확보 지원, 화물 항만 반출 지원, 적기 출고 및 선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파업 재고 촉구 및 공동성명 발표와 군위탁 화물차량 수요 조사 및 비상수송위원회(해수부, 국토부)에 건의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이제 "여보야" 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가장 스마트한 결혼방법 "여보야" 는 고비용의 천편일률적인 결혼정보 서비스가 아닌, 농어촌 등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신개념 결혼중개 서비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와 최신 시로 나의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여보야 시로 쉽고 빠르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